

4·19혁명 55주년 기념 개정판



새로운

4·19

안동일 지음

봄의 숨결이 다가오면 우리의 가슴은 민족의 정기로 뭉뚱뚱친다.

봄의 문턱부터 3·1운동이, 4월에는 4·19혁명이,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봄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시작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그 동안의 암흑과 시련을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창출해 내야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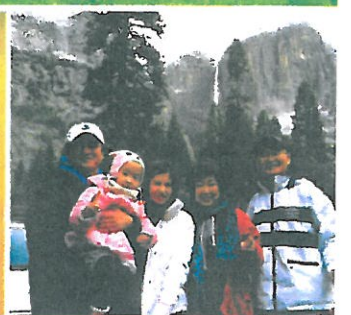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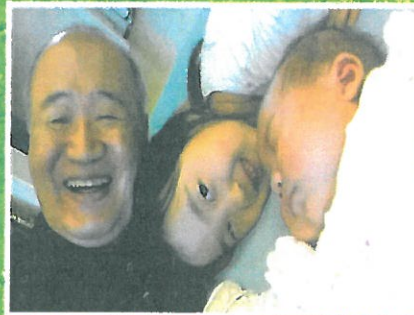




행복의 길, 정토의 길

東山과 함께한 觀海의 정진기 2 (2012-2015)

안동일 지음



도서출판 로터스